

세 번째

생산자주도 육계계열화기업 탄생

중부권 13개지역 128명 참여 (주)대원 창립

□ 취재/권동원 기자

생 산자 주도의 계열화 사업을 위한 계열주체가 또 탄생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주식회사 대경, 부산·경남지역의 주식회사 부경에 이어 경기도 안성을 중심으로 하는 주식회사 대원이 지난 9월19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근대적인 불합리한 유통구조, 생산기반의 취약성으로 대변되는 육계산업이 수입개방 위협속에서 육계사육자들은 불안한 가운데 육계를 사육하고 있다. 육계 생산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심한 가격진폭은 개선되지 않고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에게 불리한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가격경쟁력,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수준을 개선, 경쟁력을

갖출 때만이 우리 육계산업이 생존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생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계열화체계가 제시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또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계열화체계가 미래의 육계산업을 주도할 체제로 인식되고 있다.

중부지역 육계사육자 128명으로 구성

몇년전부터 계열화사업이 시도되어 왔으며 특히 1~2년전부터는 급속한 양적 성장을 보이면서 질적인 향상도 가져왔다.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계열주체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15%를 넘고 있으며, 계약의 개념으로 생산되고 있는 물량은 30%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단시일내에 급속한 양적 성장으로 계열생산에 익숙해진 생산농가들도 계열화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있다.

초창기 계열화사업은 기업주체에 의해서 주도됨으로써 육계사육자들은 계열주체와 반종속관계로 인식되어 강한 거부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계열화체계가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하고 기업주도 계열화에 거부반응만 일으키지 않고 스스로 권익을 찾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육계사육자들이 모여 계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식회사 대원은 멀리서 강원도 묵호에서부터 경기도 안성, 충청도 당진, 전라도 정읍까지 13개 지역 육계사육자 128명이 모여 창립하였다.

중부지역 육계사육자들은 지난 4월부터 육계계열화사업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 8월30일 법인등기를 마쳤다. 이들은 처음 협동조합으로 계열화사업을 하려 했으나 업종별(채란·육계)로 분리하여 설립할 수 없는 법적 모순으로 생산자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조직하

지 못하고 주식회사로 출범하였다.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기업

영세한 양축가들이 모여 경제사업을 하는 일은 당연히 협동조합이 해야 하나 업종별 협동조합은 인정되나 1도에 1개 협동조합밖에 조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협동조합법에 묶여 불이익을 감수하고 주식회사로 시작하였지만 모든 운영은 협동조합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언젠가 법이 개선되면 육계 협동조합으로 변신하거나, 기존 양계협동조합과 합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을 지향한 기업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없이 주주 1명당 최저 30주에서 최고 300주까지 상·하한선을 두었다. 또한 주식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용과 배당제를 제도화하여 협동조합식 주식회사로 운영한다.

또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라는 원리와 다르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주식회사 대원의 모든 이윤은 연말에 주주들에게 환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대원은 계열화사업으로 생산비를 낮추어 개방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춘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우선 사료와 병아리의 공동구매로 원자재 구입비용을 대폭 낮추고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다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사료와 병아리 공동구매로 원자재 구입비용을 대폭 낮추고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또한 유통에 참여하여 상인에게 넘겨주고 있는 중간마진을 없애며, 92년에는 도계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때 생산비를 20%정도 낮출 수……



음 단계로는 유통에 참여하여 중간상인에게 넘겨주고 있는 중간마진을 없애며, 92년에는 도계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때 생산비를 20%정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주주들의 자발적 참여

주식회사 대원은 주주들이 누구의 강요나 권유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더욱 강한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다.

육계산업 주변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정부 등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기 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때로는 생산자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은 기업주도의 계열화업체와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주도 계열화업체를 생산자를 위하는 업체로 유도한다는 계산이다.

생산자 주도 계열주체에 적극적 지원 필요

정부에서도 수입개방 보완대책으로 육계산업은 계열화체계를 정착시킨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계열주체를 기업주도 계열주체와 생산자주도 계열주체로 나눌 수 있으나 주식회사 대원, 대경, 부경은 주식회사 형태로 계열화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생산자들이 모여 만든 계열주체라는 점에서 이들의 활동이 향후 육계사육자의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금과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뒤진 생산자주도 계열주체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육계산업을 살리고, 육계사육자가 보호받는 계열화체계가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영세한 양축가들이 모여 주식회사들을 만들어 계열화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들이 권익을 보호받는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 협동조합 체제에서 생산자주도 계열화사업이 정착되길 기대한다. **안기**